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하나 맡겨 놓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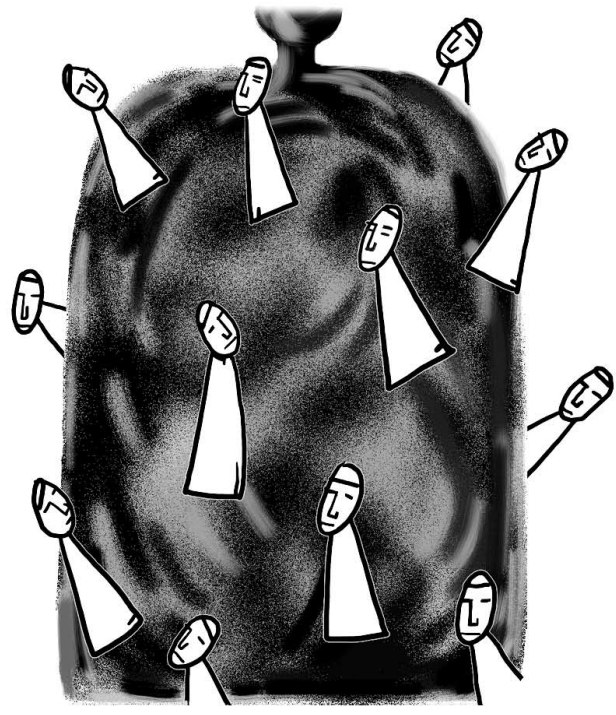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 들어왔다면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이 혹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혹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곁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위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통이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위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까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약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몸통이 한 몸통이 아닙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했듯이,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듯이 내 몸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화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몸통이 하나로 비유해서 세상에 타 나왔을 때는 그 많은 중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선장님들은

배를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배 밑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지금 팔방으로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이 배고, 발은 배 밑의 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평발이죠.

여러분은 '나 아닌 나'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습 없는 나'가 그렇게 많아서 나고 듣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모습 없는, 바로 타인의 모습 없는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왜 버려야 타르가 나지 않는 데 하나가 되지 않고 들어 왜 버린다 말입니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 몸통이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타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 뱃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에서 어떤 세균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역력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

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에 칼이 생겨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신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 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체는 타인도, 타인도 주인공은 들어 아니어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은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제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 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심과 공에 빠진 상태의 차이

문 스님의 말씀 중에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무심의 상태하고 공에 빠진 상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기공에 빠지지 않고 멈춤이 없이 바르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이끌어 주세요.

답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마는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이 내면세계의 노예

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목석이죠. 그러니 그런 공에 빠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디? 이것이 그래서 갑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하는 것은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다 하면 들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릉거리고 못 먹겠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되었고, 또 자의에서 괜히 화가 나고요, 괜히 하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거기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데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다시 뭉쳐 놓아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머니 저머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아주 분하게 되고 이거는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고 그

그리고 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주가 훌륭해서 여러분의 그 재료를 내가 가지고선 이걸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애고(愛苦), 그 괴로움 이런 거를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면서 지극한 정성과, 즉 말하자면 보이는 데서도 정성, 안 보이는 데서도 내 마음으로 정성, 항상 거기 놓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훌륭한 자기 자력이 되고 또 식구들의 제삼자 하나하나가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다. 모든 업과 모든 병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도반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을 보거나 이끌어 주는 스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채소라도 깨끗이 해서 올리고 그럴 때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맛있게 먹으라고 하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경계를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뭉쳐놓으세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으로 또 끄달려서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만 그냥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 소리죠. 그 사람들은 움직여려고 살면서 생활에서 그냥 그걸 참선인 줄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바로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제대로 좌선이며, 좌선은 모든 걸 말하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바로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라 합니다. 그러니 들로 보지 마십시오.

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정성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정성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하나가 남 주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 갖다 갖다 놓는 것도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해 놓는 데에 자기가 그 백분지일이 없어지고, 또 하나 하는 데 또 없어지고, 하나 하는 데 또 없어지고, 이렇게 왜 붓이 되면 고드름 쪼끔쪼끔 떨어지는 것 있죠? 그렇듯이 아주 얼어붙은 게 쪼끔쪼끔 떨어져서 녹아요. 그렇게 붓이 올 수 있다가 소립니다. 이거는 장담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으로.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BBS 불교방송

자용스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어린이 세상

「롬비니 동산」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자용스님의 롬비니 동산에서는
우리들 생각을 쭉쭉 키워주는 유익한 이야기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롬비니 동산으로 놀러오세요~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